

신당 “검찰이 진위 여부 확인을” 한나라 “위조 전문 남매의 사기극”

■ 에리카 김 'BBK 이면계약서' 공개... 정치권 공방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가 21일(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BBK간의 3대 의혹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겠다고 주장, 대선 정국에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에리카 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BBK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명시한 이른바 '이면계약서'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면계약서는 30장이 넘는 분량으로 BBK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계약당사자임을 입증하는 김씨와 이 후보의 서명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이면계약서가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BBK와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온 이 후보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이 후보가 이면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 위조라고 미리 차단막을 두르고 나섰다. 이 후보 측은 이들 남매가 모두 여론 등 사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한 '전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당 클린정치위원인 홍준표 의원은 “김경준과 그의 누나가 자꾸 무슨 이면계약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다 거짓말이고 허위”라고 일축했다.

박형준 선대위 대변인은 “이명박의는 맺은 적이 없고 이면계약서란 존재할 수 없다. 자신들이 검찰에 제출한 이면계약서의 진위에 자신이 있다면 왜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공개하겠느냐”고 따졌다.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선 ‘혹시 뭐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불안감도 감지되고 있다. 한 당직자는

“후보도 그렇고 측근들도 그렇고 모두가 ‘자신있다’고 말하는 데 괜히 찻찻한 구석이 있다”고 속내를 털어냈고, 다른 당직자는 “일단 에리카 김의 폭로내용을 지켜본 뒤 대책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신당 정동영 후보 측 김현미 대변인은 “에리카 김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벌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면계약서가 가져다 호환을 떨고도 하는데 BBK와 관련된 것은 검찰의 수사에 맡겨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통합신당은 또 김경준씨가 횡령한 자금 중 일부가 이 후보의 회사인 LKe뱅크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신당측은 김씨의 회사 BBK가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LKe뱅크가 함께 일부 상환금을 송금해 줬음을 뒷받침하는 미연방검찰 수사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에리카 김은 누구



최근 한국으로 송환돼 구속 수감된 김경준 전 BBK 대표의 누나 에리카 김(44·한국명 김미혜)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에리카 김이 이 후보와 인연을 맺은 시점은 지난 1994년이다. 당시 이동원 한미신용정보 회장이 신양간증자 미국을 방문한 이 후보에게 에리카 김을 소개했다. 1974년 이민을 왔던 에리카 김은 코넬대 정치학과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로스쿨을 거쳐 27세에 변호사가 된 측량받는 한인 교포였다.

김씨는 이듬해인 1995년 한국에서 ‘나는 언제나 한국인’이란 제목의 자서전을 썼으며 이 때 정·재계 인사들이 출판회를 후원하면서 이 후보와 에리카 김은 남다른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BBK 의혹’ 수사결과 발표 언제

후보등록 전이나 후냐...초긴장

김씨-李후보측 진술 엇갈려

23일-내달 5일 놓고 저울질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조사 중인 검찰이 김씨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에 대해 후보등록일 이전에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대선 후보등록일(25~26일)까지 남은 기간은 5일이다.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신분 보장 조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재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와 증거물 분석, 관계인 소환조사 등 수사 초기 단계를 밟고 있다.

김씨와 이 후보측 관계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김씨가 낸 증거물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후보등록 이전에 이 후보의 연루 의혹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 후보가 중요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서면 또는 소환 조사 등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소는 수사를 일단락짓고,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

가 있다고 인정돼 법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인 만큼 닷새 만에 대강의 상황을 마무리짓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아직 검찰은 이 후보 조사와 관련해 방법이나 시기의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 후보가 김경준씨의 주장대로 의혹에 연루된 공범임이 드러났을 때 중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는 주가조작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주가조작은 증권거래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정경제범죄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후보등록 이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남은 시점은 김경준씨의 구속시기일이다. 김씨는 미국 현지에서 한국 수사당국에 16일 오전 인계돼 18일 오후 구속됐다.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므로 1차 구속 기간은 열흘 동안인 25일 자정까지다. 법원 허가를 받아 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어 2차 구속 기간은 12월 5일까지다.

구속 기간이 끝나면 기소해야 하므로 검찰은 구속 만기일 직전에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가 한창일 때라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김경준씨 혐의 대체로 부인”

변호인 박수종 변호사 사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경준씨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변호인 박수종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씨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외의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외부에 노출하지 않기로 검찰과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합구하고 이날로 김씨의 변호를 그만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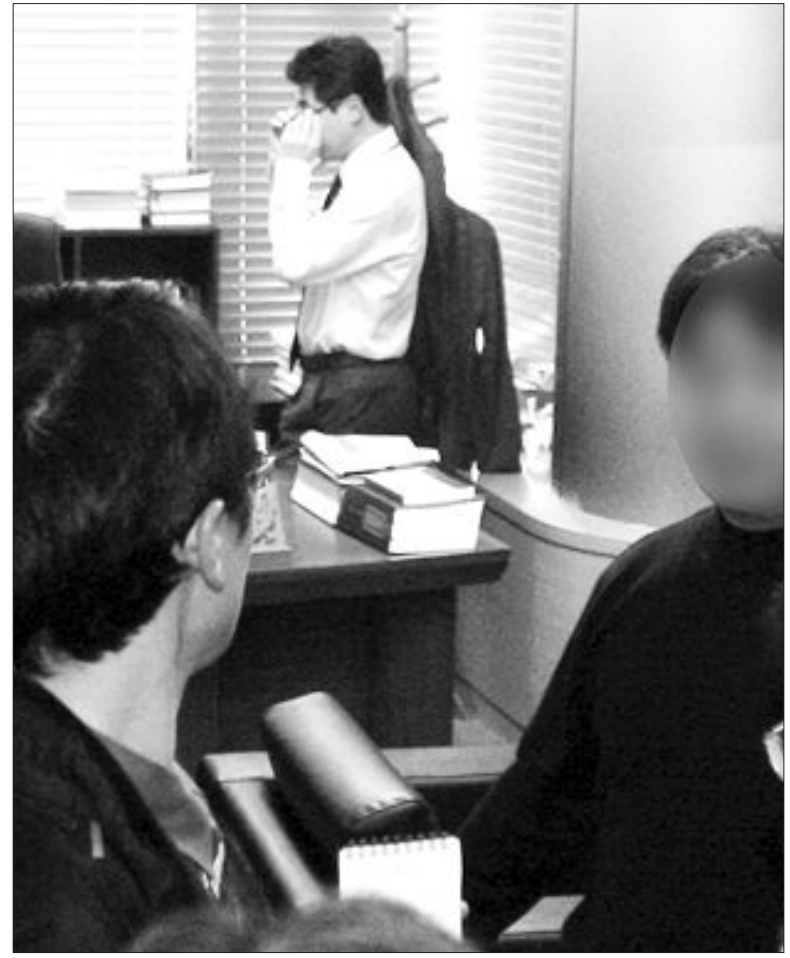
박 변호사는 “진짜 금융조작 사건이고 늘 하는 사건이라 법적인 조연을 한다는 생각으로 했고, 김씨가 좀더 일찍 몰랐었다”며 “이 정도까지인 걸 몰랐고 (취재진이 몰리는 등)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박 변호사의 이 같은 언급은 이번 사건이 정치사건으로 비화한데 대한 부담감을 내비친 것으로 검찰이 이미

주가조작이나 횡령 등 김씨의 기존 피의사실에 대한 통상적 조사를 거의 마치고 현재 정치적 이슈가 된 이 후보의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변호사는 “두달 전 김씨의 가족과 (사건 수임) 얘기를 했을 때 이정도가 지인 줄 몰랐다”며 “김씨의 귀국 시기가 선거에 근접할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 김씨가 좀더 일찍 (한국에) 올 줄 알았다고 김씨의 가족도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가 주장하는 ‘이면계약서’를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박 변호사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김씨의 누나가 보낸) 서류 박스도 아직 열어 보지 못했고 보내기 전에 (김씨 가족에게) 들은 말씀으로 미뤄봤을 때 미국에서 있었던 소송 서류가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유서남번저스 주가조작 및 BBK 회사 돈 횡령 혐의’로 구속된 김경준씨의 변호인 박수종 변호사(왼쪽)와 이씨(가운데)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취재진들을 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후보 거짓은 진실앞에 맥 못 볼 것”

정동영 기자클럽 토론회

대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는 20일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호남 정치 인과’를 일일 같이 못해 맥 못 보겠다”는 발언과 관련,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이 장점이 많은 분이지만 저와는 많이 다르다”며 이같이 평했다.

정 후보는 이어 “대통령의 말은 국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이어야 한다”며 “(나는) 정치하면서 뒷사람에게 할 말은 분명하게 해주지만 동료와 아랫사람에게는 할 말이 있어도 참아왔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노 대통령의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정 후보는 이어 참여정부 ‘2인자



‘황태자’ 논란에 대해서는 “황태자가 아니라 저는 죽도록 하고 욕과 매는 많이 맞은 일소(牛) 같은 처지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성과 논란에 대해 “전체적으로 참여정부가 가려고 한 방향은 옳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께 상처와 부담을 드린 데 대해 죄송스

럽게 생각한다”며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될 것이 문제였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10년의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하는 건 분하다”며 “지난 10년 자유와 인권·평화·삶의 질·자유가 늘어났는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지지율과 대중의 지지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과 진실에 대한 추구로, ‘한 발’이 아니라 ‘발에 의해 진실이 드러나길 기대한다”며 “그동안 거짓말로 가려져 있던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진실 앞에 거짓과 허위는 맥을 못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 같은 어떤 어떤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산행안나
11월 22일(목) ▲가고파산악회 전북 무안 내편산 산행... ▲광주금강산악회 영남 원출산... ▲광주도요산악회 예산 가야산... ▲광주자연보호자연산악회 대가산... ▲광주비대리산악회 송년 공주 원출산... ▲광주목요산악회 경남 남해시 방안산... ▲광주목요산악회 경남 남해시 방안산... ▲광주목요산악회 경남 남해시 방안산...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겨울방학 교육학+전공특강
2009학년도 새학기 변화된 시험제도 완벽 대응! 최고의 직업을 보장하는 현대고시학원 교수진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교육학 김인식 교수(직장) 개강 1월 10일(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장) 개강 1월 6일(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장) 개강 1월 7일(월) 15:00~21:00
국어 유광재 교수(직장) 개강 1월 5일(토) 10:00~18:00
영어 류호강 교수(직장) 개강 1월 6일(일) 14:00~17:00
과학교육 류호창 교수(직장) 개강 1월 5일(토) 14:00~18:00
= 공민중개사/주택관리사 합격설명회 =
매주 - (화,목) 오후 6시 - (토) 오후 3시
현대고시학원 www.hgosi.net

= 앞으로 세무직 많은 채용 예정!! =
7·9급 공무원
행정+공안+기술직
= 전국 유일의 정통 권위 강사진 출출강!! =
개강 : 1월 15일 주·야(휴)반 모집 (현장집수)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공무원 5만명 증원(2007년부터 2010년까지) =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7급 공무원 개강 12월 3일
한빛공무원학원 www.hanbitgosi.co.kr